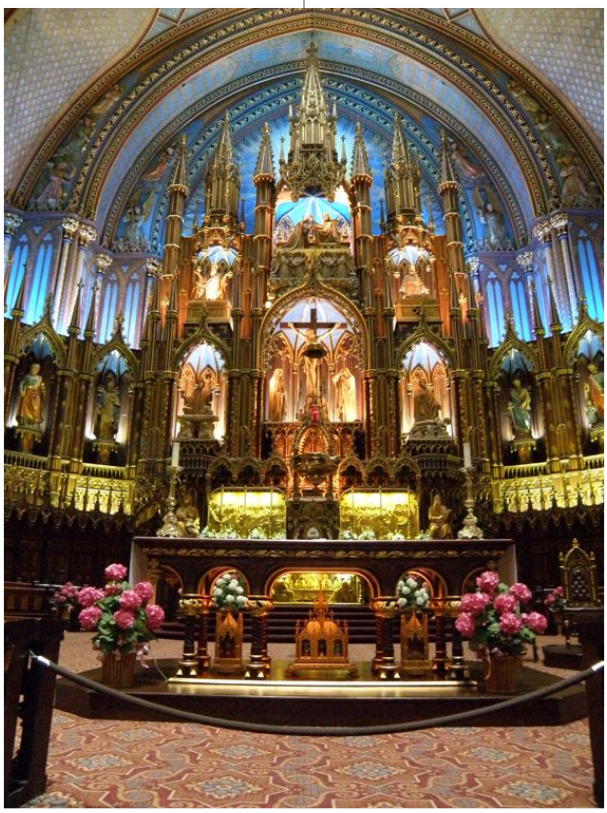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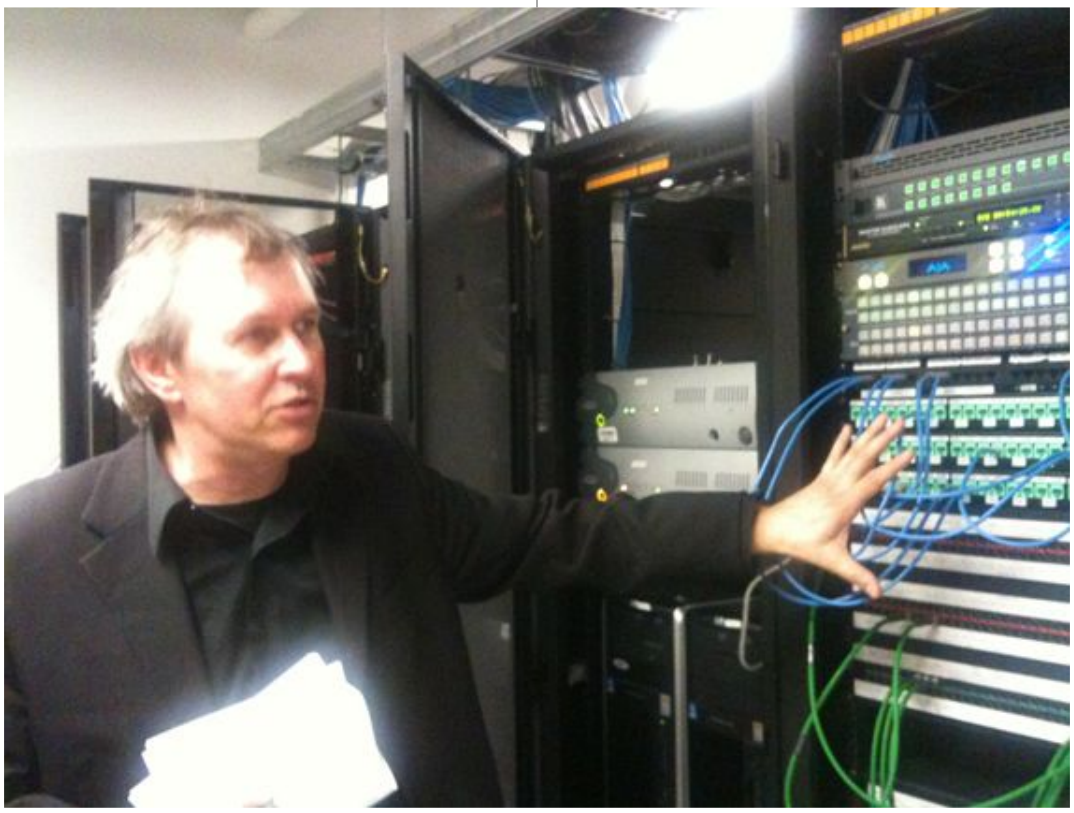
[호경윤 기자의 사진첩] 몬트리올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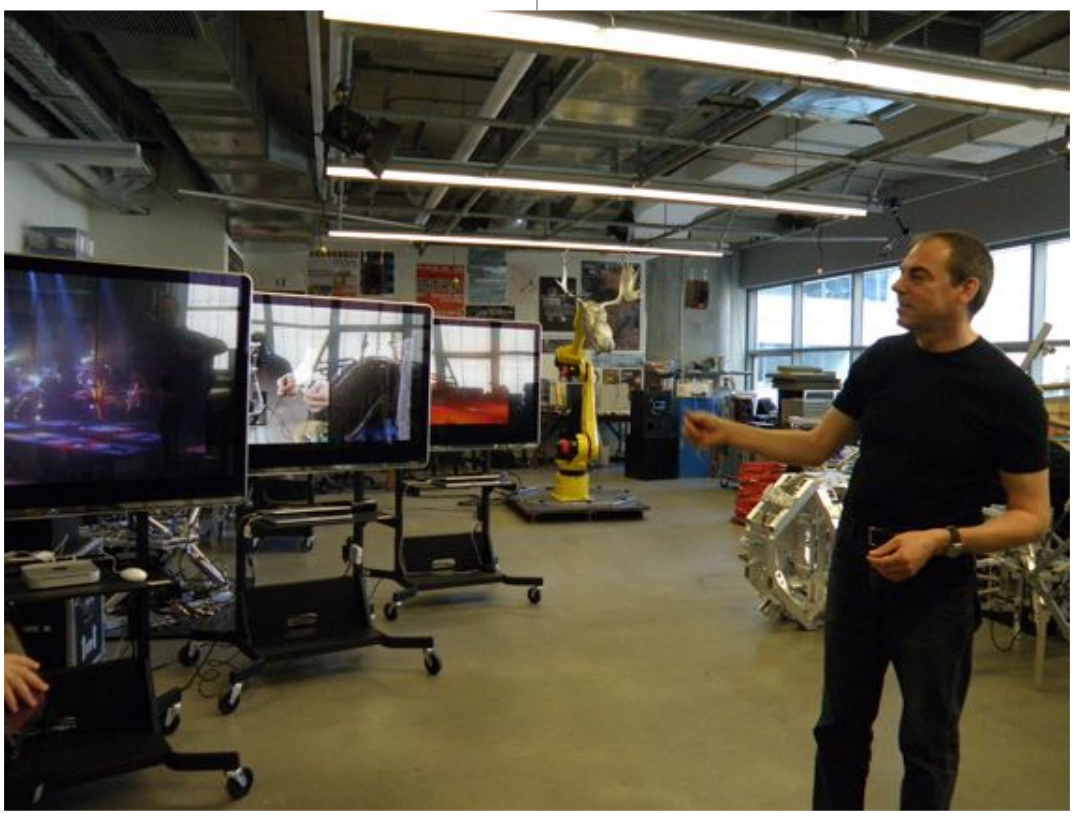
COLUMN

2011 / 05 / 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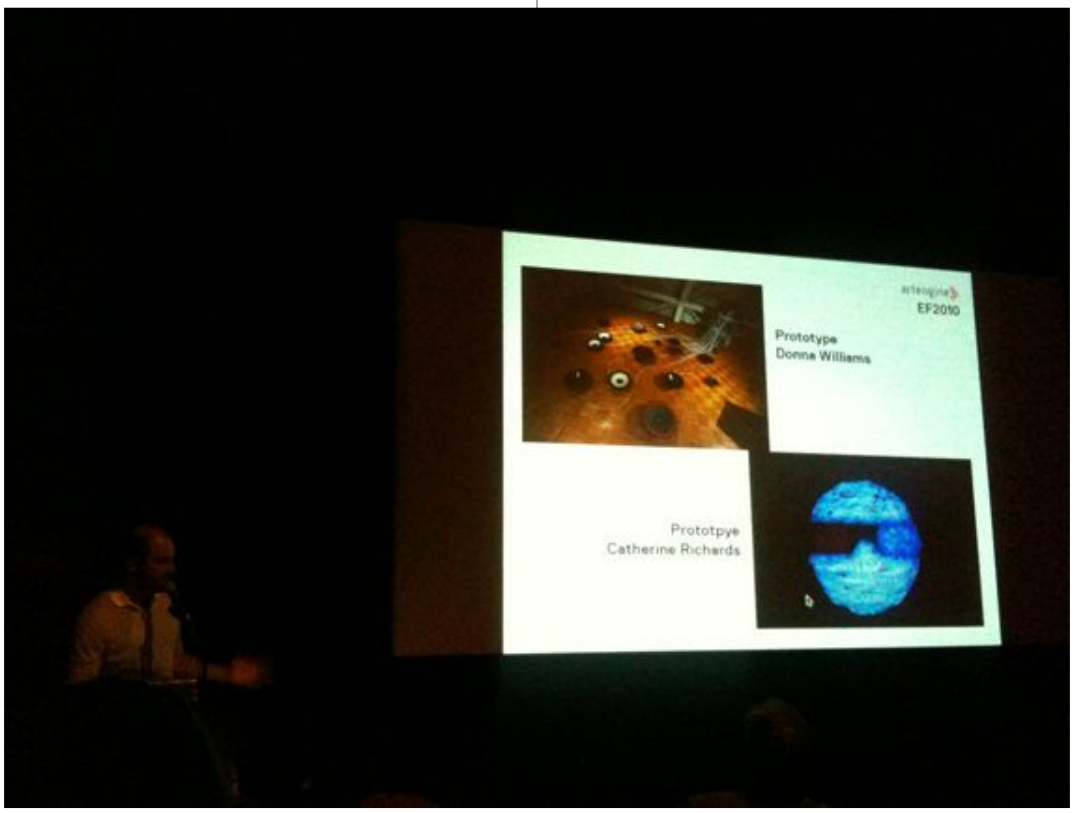
호경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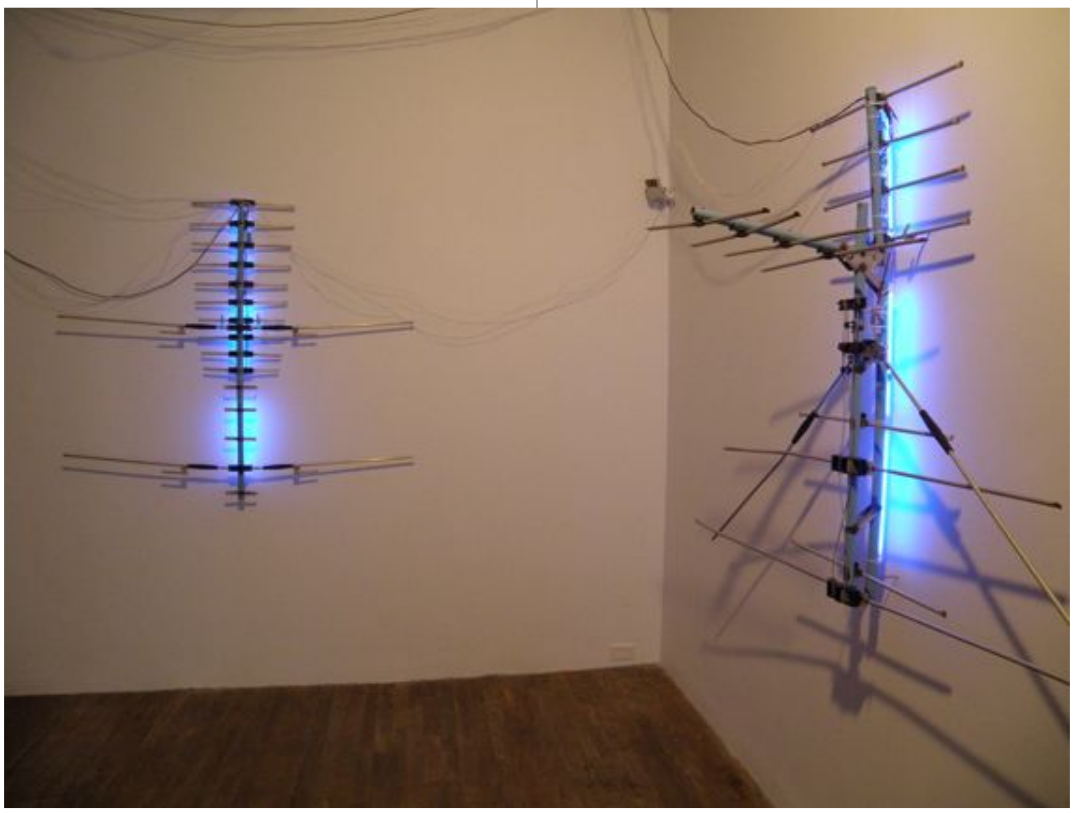




몬트리올 내 4개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미디어아트 전문 연구소 "헥사그램" 내의 다양한 랩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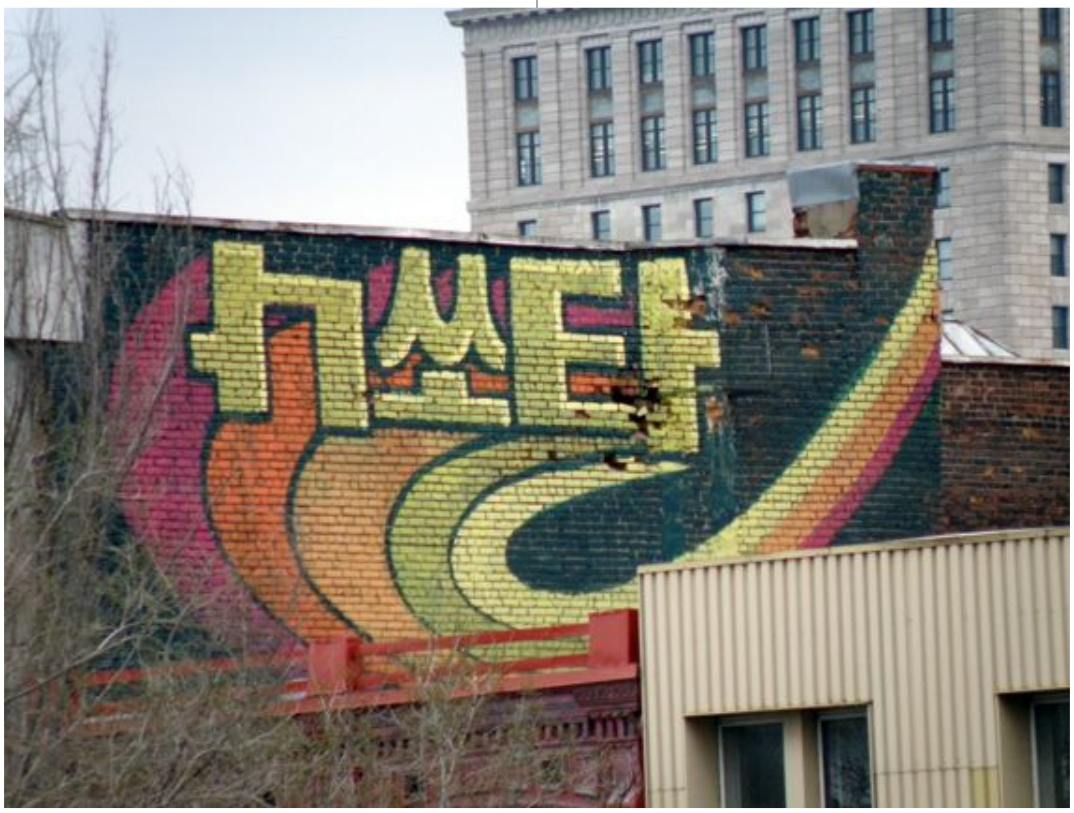


퀘벡시네마테크에서 양일간 열린 컨퍼런스 International Marketplace for Digital Arts.
총 29명의 미디어아트 전문가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.



부대행사로 몬트리올 내 주요 전시장에서 미디어 설치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.

마침 <몬트리올 비엔날레>가 열리고 있었는데, 전시 수준은 별로였습니다.



몬트리올 시내에는 곳곳에서 그래피티를 볼 수 있었는데,
그 중에서 차이나타운에 그려진 "쏘나타"가 눈에 띄었습니다. ^^